

물리학분야 남성 절대 우위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여성〉세미나서 밝혀져

81년부터 88년까지 7년간 한국의 대학에서 배출된 이학계 총인력 8만4천명중 화학,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남녀인력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물리학이며 유일하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배출된 곳은 생물학으로 알려졌다.

통계학, 지구과학을 포함한 6개 기초과학 분야에서 배출된 남녀인력 총 5만8천명중 물리학에서는 남자가 7천9백58명으로 여자 1천8백84명의 4.2배에 달해 화학분야 1.9배, 통계학분야 2.8배보다 절대적인 남성인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국제문화연구소(소장 김복동)가 마련한 〈21세기를 준비하는

분류돼 자연계 인력수효 파악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학·약학 등의 의학계 남녀인력비 역시 86.9% (2만3천1백1명) 대 23.1% (1만5천4백94명)로 여성이 큰 약세. 그러나 약학계·간호학계 분야에서만큼은 각각 여성 점유율이 70.0%, 98.5%를 차지해 약학·간호학에 여전히 여성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김 교수는 한국의 여성과학인력 양성의 이러한 문제점은 소규모 사립대나 여자대학의 자연대가 구조상 농·공·의·치의과 대학 등 응용과학 분야와 연계되지 못해 교수의 양·질적 수준, 연구지원, 기기시설

여학생 수학공포증, 아동기부터 줄여나가야

한국여성〉토론회에서 김명자(숙대 이과대학장) 교수의 '과학기술사회의 발달과 한국여성'이라는 주제발표로 드러났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생물학 분야는 82년(남자 3백80명 여자 2백61명)을 제외하고는 여성인력이 계속 남성인력을 상회해 왔고 수학분야는 남녀인력이 각각 6천6백11명, 5천6백85명으로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교수는 "81년부터 88년까지 한국의 대학이 배출한 이학계 총 인력 8만4천명중 남성인력이 3만7천명 여성인력이 4만7천명으로 여성인력이 남성을 앞지르는 것으로 집계된 것은 오류"라고 밝히고 이는 사회과학 분야에 더 가까운 가정계의 가정학 및 의류분야의 여러학과가 이학계로 잘못

등 교육·연구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따라서 김 교수는 여자대학의 이러한 영세성은 특성적 응용분야의 학과를 자연대내에 증설하고 대학간 학점교환 제도 도입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여학생이 남자에 비해 수학에 약하다'는 전통 인식이 여성의 과학·공학분야의 진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여학생의 수학공포증은 아동기부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개발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남녀인력 격차와 성차별 현상을 해소시킬 사회제도적 방안으로는 각종 전문직에서 여성에게 적정 비율을 '할당'하는 잠정적 고용 증대 조치의 고려도 거론됐다.